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의현 입니다. 제가 발표할 3분 스피치 주제는 활용도 높지만 끊이지 않는 헬기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주제에 말한 것처럼 헬기는 이용도가 높아 가끔 하늘을 보면 자주 돌아다닐 정도로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아 많이 사용돼지만 최근에는 헬기에 연관돼 어진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15년 3월 14일 토요일아침 이번 헬기사고는 임모군의 갑작스러운 복통에 의해 임모군을 태우러 해 무를 뚫고 착륙을 하던 중 방파제를 배회하다가 추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로인 해 정비사 박모군 헬기조정 사 2명 응급구조 사1명등 추락하여 박모군은 사고2시간만에 발견되었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헬기사고를 살펴보면 지난 7월 가까운 광주수완지구 장덕동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지원활동 마치고 복귀하면 소방헬기가 도심에 추락하여 소방대원 5명이숨졌ㅆ습니다. 또한 이 사고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몰린 도심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서울아이파트 에 미간헬기 충돌사고에 의해 조 정사2명이숨졌고 또한 이 사고는 헬기가 도심민간건물에 충돌한 첫 사고 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2008년 경기도 양평에서 응급환자이동을 하여 부대 복귀하던 육군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들 7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를 보듯이 헬기사고는 민, 관, 군을 가리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헬기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안정성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헬기에 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의심합니다. 이번 가거도 헬기착륙사고는 가거도에서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해경이나 소방본부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뱃길로는200km가 넘어서 쾌속선을 타도 4시간 반이 걸려 응급환자를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이 안 좋거나 밤중이라도 비행을 해야 하고 짙은 안개가 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문제는 착륙장이나 유도 등 같은 기본적인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라는 점입니다. 사고 당시 착륙을 시도했던 가거도의 방파제 역시 폭이 좁고 조명시설도 전혀 없어 당시에도 주민이 비추는 손전등에 의지해 착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은 걷어 이러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헬기착륙장은 고사하고 몇 십만 원이면 갖추는 기초 안전시설인 서치라이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정부의 안전불감증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전불감증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사람목숨이 걸린 문제를 놓고 예산 따지고 지역 따지고……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험한걸 알면서도 출동해준 헬기조종사와 구조대원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